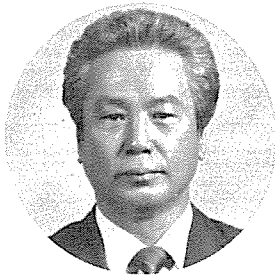


科學教育센터도 設立하자



金 昌 植
(國民大교수 · 物理學)

우리나라의 산업이 모방에서 창조로 전환되려면 대학을 중심으로한 기초기술연구가 활성화 되어야 하고, 고급두뇌 인력을 양성하는 일도 기초기술연구가 활성화 되어야하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려해도 기초기술의 연구가 활발해야 한다.

기초기술연구가 활성화되면 지방시대에 따른 지방대학이 활성화되며 대학의 면학분위기가 조성되어 노벨상의 도전은 물론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고용창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연구개발비는 GNP 대비 2% 수준이며 이중에 3%가 기초연구에 투자되어 우리나라 대학 연구인력 1인당 14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미국의 7,600만원, 일본의 4,600만원, 대만의 740만원에 비하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따라서, 1988년도 석유잉여금 3조3천억원중에서 시급히 3,000억원을 기초연구활성화 자금으로 배정하고 2001년까지는 1조원의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상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 가입되어 있

는 175개의 학회와 과학기술관계기관 53개와 97개의 대학이 공동으로 건의한 2000년대 복지사회 건설을 지향한 과학기술 기초연구활성화 추진에 관한 건의서의 개략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에 관계하는 모든 연구인력의 절규이며 정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는 대모인 것이다.

다행히도 이 건의는 좋은 반응을 보여 기초과학연구에 종사하는 많은 과학자들의 가슴을 한때 부풀게 하였다.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기초과학기술발전을 도모할 것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여 1990년에 SRC(Science Research Center)와 ERC(Engineering Research Center)를 10개 만들어 세계선진국에 도전장을 내어보자고 합의하였다.

지방마다 어느 대학과 어느 학자가 공동으로 연구할 것이며 무엇을 할 것인가를 조사하고 의논하느라 한참 동안 분주히 뛰면서 정말로 연구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 믿고 잠을 설쳐왔다.

그런데 이제와서 이 무슨 날벼락인지 3,000억 원은 커녕 1,000억도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라 하며 300억이니 400억이니 하는 소리가 나돈다.

3조3,000억원이란 석유잉여금이 어디로 도망쳐 버리려 하는지 알 수가 없으며 눈물겹도록 안타깝고 가슴을 칠 일이다. 누구는 이런 소리를 한다.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머리띠를 두르고 고향을 질러야 한다”고.

그러나 어찌 우리들마저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학자들 답게 건의서를 내고 세미나를 통하여 기초과학의 진흥없이는 2000년대의 첨단 기술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고 부르짖어 보는 수 밖에 별 도리가 없는 일이 아니겠느냐.

석유잉여금 3조3천억! 도대체 이런 막대한 돈이 언제 있었던가? 이런 호제에 눈 딱 감고 과학기술진흥에 투자해 볼 만도 한데, 정치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 수가 없다.

광주의거 희생자 보상금에 이돈을 쓰자, 농어촌부채 탕감에 이돈을 쓰자, 수질오염방지에 이돈을 쓰자, 교육환경개선에 이돈을 쓰자, 모두 들 있는 목청을 다 돌구고 있으니 과연 이돈이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여질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생각해 보면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목소리는 오늘에 갑자기 일어난 것은 아니다. 1987년 과학기술처는 2000년대의 미래사회를 정보화 사회, 첨단기술 사회, 두뇌산업 사회로 예측하고 2001년까지 기술선진 10위권에 진입시킨다는 목표로 7대 계열분야에 15년동안 53조원을 투자하는 2000년대를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계획을 세워 당시 전두환대통령께 보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동안 이렇다할 추진실적을 보이지 못한 채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우는 경제발전이 몇차례의 노사분규에 휘청거리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려는지, 계속 남의 것을 모방하는 노동집약산업으로 한강의 기

적을 계속할 수 있다고 보는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한가지 희망은 보인다. 그것은 노대통령께서 1990년도 정부예산에 기초과학을 진흥할 예산이 부족하니 좀더 올리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한가지 갑갑한 일은 얼마인데 얼마나 올리라고 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대통령이 특별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니 아마도 2,000억쯤은 되리라 기대해 본다.

그러나 여기에 또 한가지 염려가 되는 것은 대학과 고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이다. 주당 평균 17시간을 맡고 있는 대학교수들이 과연 이 막중한 기초과학연구에 몰두 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와 기초과학의 기초가 되는 물리, 화학을 고등학교의 자연계열 학생들이 기피하고 있는 현상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이다.

따라서 기초과학기술 연구에 못지않게 기초과학교육을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등학교에서는 과학교육을 어떻게 얼마만큼 시켜야 하며 대학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지의 연구도 병행되지 않으면 기초과학의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다행히 내년예산에 몇천억의 자금이 만들어진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SERC(Science Education Research Center)의 설치를 촉구하는 바이다.

무엇이라고 변명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는 분명히 고등학교의 과학교육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를 잘 모르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의 기초과학 교과목의 교육도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돈을 투자하여 기초과학기술 발전을 도모하려면 SRC, ERC와 함께 SERC도 함께 발족하여 연구되어야 이 목표를 달성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